

낭만적 문화 비평의 재발견

— Shelley의 *A Defence of Poetry*를 중심으로

정희원

[1]이글튼(Terry Eagleton)은 *Literary Theory*(1983)에서 영국 낭만기에 순문학 개념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부터 '문학'이 '상상적인 것'과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18) 그는 상상적인 것, 곧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해 쓰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풍토가 자리잡게 되는 시점이 이 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데올로기이되 탈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순문학 개념으로 규정한다. 한편 맥간(Jerome J. McGann)은 *The Romantic Ideology*(1983)에서 낭만기 작품 전반에 역사에 대한 "치환과 이상화의 드라마"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낭만주의 비평이 이러한 초월적인 "낭만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왔다고 비판한다.(1-3)

이글튼과 맥간의 공통 전제는 낭만기 문학이 산업혁명이 전개됨에 따라, 혹은 프랑스 혁명의 좌절 이후, 현실과 역사로부터 떨어져 초월 지향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라면 낭만주의 시인은 타락한 현실에서 자신을 분리시킨 채 초월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인물형이라는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 비평이 낭만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혐의를 부정할 수만은 없지만, 이러한 전제를 낭만기 시나 시인에 적용하여 초월적인 면모만을 읽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낭만기 시인들은 시나 시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바 있는데, 그들의 논의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셸리(Percy Bysshe Shelley)의 *A Defence of Poetry*(이하 *Defence*)를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Lyrical Ballads* 서문 등과 함께 읽어보면서 이들 낭만기 작가들이 말하는 시인과 시, 그리고 상상력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2]워즈워스의 *Lyrical Ballads* 서문은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 넘침"([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72])이라는 구절로 인하여 흔히 낭만주의 문학의 선언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에이브럼즈(M. H. Abrams)는 *The Mirror and the Lamp*(1953)에서 이 구절을 “시는 시인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골자의 표현주의 이론에 초점을 맞춘 낭만주의관의 근거로 삼는다.(21-23) 맥간이 낭만적 이데올로기를 들어 낭만기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은 에이브럼즈 식의 이러한 낭만주의관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Lyrical Ballads* 서문이 실은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담고 있고, *Lyrical Ballads*에 실린 시들도 “강렬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 넘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글을 당대 문화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워즈워스는 서문의 서두에서 자신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당대 문화의 맥락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I]t would be necessary to give a full account of the present state of the public taste in this country, and to determine how far this taste is healthy or depraved; which, again, could not be determined, ... without retracting the revolutions, not of literature alone, but like wise of society itself. (70)

여기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이 이러한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중들의 취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지 타락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이 해명의 과정은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변혁에 관한 논의를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대중적 취향이 타락해 있는 당대의 상황이 문학 내적인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상황 전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그렇다면 워즈워스는 당대의 문제점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을까? 이는 다음 단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For a multitude of causes, unknown to former times, are now acting with a combined force to blunt the discriminating powers of the mind, and unfitting it for all voluntary exertion to reduce it to a state of almost savage torpor. The most effective of these causes are the great national events which are daily taking place, and the increasing accumulation of men in cities, where the uniformity of their occupations produces a craving for extraordinary incident, which the rapid communication of intelligence hourly gratifies. (73)

워즈워스는 당대의 문화적 경향이 사람들의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고 능동성을

위축시켜서 결국 사람들의 감수성을 무감각한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진술한다. 도시화와 이에 따른 삶의 획일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색다른 자극을 원하게 된 것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이유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과 연극 같은 문화 전반이 대중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글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나 재미밖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워즈워스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속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가 “가치있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유명한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 넘침”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서이다.

[T]he Poems in these volumes will be found distinguished at least by one mark of difference, that each of them has a worthy purpose; ... For 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but though this be true, Poems to which any value can be attached, were never produced on any variety of subjects but by a man, who being possessed of more than usual organic sensibility, had also thought long and deeply.
(72)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 워즈워스가 시를 “강렬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 넘침”이라고 정의한 바로 뒤에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치 있는 시는 탁월한 감수성을 소유한 이의 깊은 사고를 통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워즈워스가 자신의 시가 가치 있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감정의 표현보다는, 당대에 유행하던 글들이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자극적인 소재들로 넘쳐났다면, 자신의 시는 남다른 감수성과 깊은 사고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보다 보편적인 인간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서문에서 “본질적인 열정”이나 “근본적인 감정”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워즈워스가 *Lyrical Ballads*에서 얼마나 이런 성취를 거두고 있는가는 별도로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서문이 좁은 의미에서 워즈워스의 시학을 다루고 있는 글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를 비판하는 사회적 기능을 목적으로 쓰였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낭만적 문화 비평의 흐름은 2세대

낭만주의 시인들 중 셸리에게로 이어진다.

[3] 셸리의 *Defence*의 서두는 이성(reason)과 상상력(imagination)에 대한 대비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셸리는 이성과 상상력을 각각 분석과 종합, 계산과 가치에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상상력의 성격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성이 양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상상력은 그 양적인 것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셸리가 이성과 상상력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분석 뒤에는 종합이 따르고 계산 뒤에는 가치의 인식이 따라야 하듯이, 셸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이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상상력이라는 이름의 정신 작용에 부여한다.

셸리 역시 당대의 문화상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례로 그가 *Defence*에서 반대하는 “계산”(calculation)은 페인(Thomas Paine)이나 고드윈(William Godwin),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같은 진보/급진 진영의 용어였다.(Kaufman 708) 셸리는 기계적인 이성을 통한 변혁이 갖는 한계를 이들에게서 보았기에 시와 상상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The cultivation of poetry is never more to be desired than at periods when, from an excess of the selfish and calculating principle, the accumulation of the materials of external life exceed the quantity of the power of assimilating them to the internal laws of human nature. (135)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상상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셸리의 주장은 그가 설명하고 있는 상상력이 문학적인 상상력보다 넓은 의미의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셸리는 “계산”이나 “공리성”(utility) 같은 개념들이 분명 사회적 개혁을 이끌어 낸 부분이 있지만, 계산적 이성만으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할 때 그것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시와 상상력의 힘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상상력은 초월적이고 탈현실적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 개혁이 실제 적용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셸리는 상상력을 “사고에 작용하는 정신”(mind acting upon those thoughts, 109)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상상력론(論)은 *Defence*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전개된다. “The

great secret of morals is Love; or a going out of our own nature, and an identification of ourselves with the beautiful which exists in thought, action, or person, not our own." (118) 이 대목에서 셸리는 상상력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에게서 벗어나 자기가 아닌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겠다. 셸리는 "사랑"을 "On Love"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It [Love] is that powerful attraction towards all that we conceive or fear or hope beyond ourselves when we find within our own thoughts the chasm of an insufficient void and seek to awaken in all things that are, a community with what we experience within ourselves. If we reason, we would be understood; if we imagine, we would that the airy children of our brain were born anew within another's; ... That is Love. This is the bond and the sanction which connects not only man with man, but with every thing which exists. (473)

여기서 셸리가 말하는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나 가족에 같은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관계에 관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셸리는 우리 안에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질 때 스스로의 내부에서부터 비롯되는 공동체적인 경험을 일깨우는 것이 사랑이라 말한다. 이러한 때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희망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강함 끌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래 인간의 내면에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개인 안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욕망이 이미 내재해 있다고 할 때에 개인과 사회가 이분법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성으로 사고하면 이해 받을 수는 있지만, 상상력은 우리 자신의 분신이 다른 사람 속에서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보다 근원적인 관계 회복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셸리는 주장한다. 상상력의 또 다른 이름인 사랑은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인 것이다.

또한 셸리는 사회적 공감이라는 것이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그의 공감론이 18세기적인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셸리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A man, to be greatly good, must imagine intensely and comprehensively; he must put himself in the place of another and of many others; the pains and pleasures of his species must become of his own. The great

instrument of moral good is the imagination; and poetry administers to the effect by acting upon the cause. (118)

여기서 셸리가 말하는 상상력은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가 이미 "On Love"에서 말한 바와 같은 힘이다. 이러한 공감의 문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세기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스미스가 상상력이 인간을 공감으로 이끄는 중요한 힘이라고 주장한 것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셸리의 상상력론은 이러한 18세기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미 스미스에게서부터 공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발견된다.

After all this, however, the emotions of the spectator will still be very apt to fall short of the violence of what is felt by the sufferer. ... That imaginary change of situation, upon which their sympathy is founded, is but momentary. The thought of their own safety, the thought that they themselves are not really the sufferers, continually intrudes itself upon them; ... (Smith 21)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여기에서 공감의 가능성이 비롯되지만, 관찰하는 이가 고통받는 이만큼 그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실상에 대하여 스미스는 지적하고 있다. 공감의 순간은 일시적이며, 관찰자 자신은 고통받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이 계속해서 공감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거리에 대한 자의식은 공감론이 대두되었던 18세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며, 셸리 역시 이러한 공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공감이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제 것처럼 느끼는 대신 고통의 관조에 탐닉하는 수동적인 양상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셸리는 따라서 이러한 낙관론에 머무르지 않는다. "[A]nd equality, diversity, unity, contrast, mutual dependence, become the principles alone capable of affording the motives according to which the will of a social

1) "Though our brother is upon the rack, as long as we ourselves are at our ease, our senses will never inform us of what he suffers. They never did, and never can, carry us beyond our own person, and it is by the imagination only that we can form any conception of what are his sensations." (Smith 9)

being is determined by action, inasmuch as he is social;" (110) 그는 두 사람만 모여도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 바로 뒤에 이와 같은 단서를 붙인다. 평등, 다양성, 일치, 차이처럼 서로 모순된다고 간주되는 자질들을 잃지 않을 때에 사회적 존재는 비로소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이 도구라면 상상력은 동인" (Reason is to Imagination as the instrument to the agent, 109)이라는 셸리의 명제는 상상력이 행동을 일깨우는 능동적인 힘임을 말하고 있다. 셸리의 시론(詩論) 역시 이러한 상상력 개념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We want the creative faculty to imagine that which we know; we want the generous impulse to act that which we imagine; we want the poetry of life." (134) 아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상상한 것을 행동하도록 충동하는 기제가 바로 시라고 셸리는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과 상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8세기의 공감론이 감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 공감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감정의 소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셸리가 *Defence*에서 상상력이 상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동인임을 강조하는 것은, 18세기적인 공감론에서 드러난 수동성을 경계하고 상상력이 행동을 일깨우는 실천적인 힘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아는 것과 상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시이다. 따라서 여기서 시는 정치나 사회와 무관한 예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총체적인 삶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셸리적인 시인은 그의 시와 상상력론을 구현하면서 삶의 시를 추구하는, 일종의 본보기적인 인물이다. *Defence*에서 시인은 사회나 자연이 자신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이러한 즐거움을 공동체 내에서 배가시킬 수 있는 역할에 일조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시인은 나이팅게일"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다.

A Poet is a nightingale, who sits in darkness and sings to cheer its own solitude with sweet sounds; his auditors are as men entranced by the melody of an unseen musician, who feel that they are moved and softened, yet know not whence or why. (116)

"시인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고독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는 이 구절은 종종 낭만기 시인의 유아론을 표현하는 구절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분

명한 것은 바로 뒤따르는 문장에서 그의 노래를 듣는 청자들이 상징되어 있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 노래에 감동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덕적 선의 중요한 도구는 상상력” (“*The great instrument of moral good is the imagination.*” 118)이라는 문장과 비교해 보면, 셸리가 시인과 독자의 상호작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낭만적 상상력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오해되어 왔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셸리에게 상상력은 사랑이나 공감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위즈워스가 시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기반으로 독자와 소통하길 원했듯이, 셸리도 나이팅게일 같은 시인의 존재를 통해 시인이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4)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 이후 전 유럽이 보수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따라, 영국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실패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유럽 각국에는 왕정이 다시 수립되었다. 혁명의 열기에 들떴던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혁명이 결국 이전의 정치체제 복귀라는 허망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²⁾ 바이런과 셸리 같은 혁명 후 세대의 자유주의자들이 그 전의 세대만큼 낙관적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³⁾ 기억해야 할 것은, 1789년 바스미유 함락 이후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프랑스 혁명의 실패는 여전히 바로 어제 일어난 것만 같은 현재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혁명 이후 “모든 음모와 모든 학살, 모든 개혁, 모든 공화주의적인 열정이나

2) 셸리는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에서 “미국의 정당하고 성공적인 혁명”(the just and successful Revolt of America)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13) 그가 미국 혁명을 “revolt”라고 일컫은 것에 대하여 모린 맥레인(Maureen N. McLane)은 이를 *The Revolt of Islam*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셸리가 그의 작품에 “The Revolution of Islam”이 아니라 “The Revolt of Islam”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그에게 “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이전의 대부분의 사상가들에게 그랬듯이 순환의 의미를 내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루이 16세 대신 나폴레옹이라는 새 군주가 들어선 혁명 후 프랑스를 돌아보며 셸리가 느낀 좌절을 이러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이 순환고리를 끊는 것이 계몽주의 혁명가들의 꿈이었다고 맥레인은 진술한다. (McLan 119)

3) 매릴린 버틀러(Marilyn Butler)는 *Romantics, Rebels & Reactionaries*(1981)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In tone the post-war liberals seem much less optimistic than their pre-war precursors: Shelley is given to despondency, Byron to cynicism. Symptomatic of their difficulty in believing in man’s power to change things is their positioning of their heroes in relation to an action.” (Butler 125)

반동적인 진압은 프랑스의 전례에 따라 해석되곤 했다”(E)very plot, every massacre, every reform, every sign of republican fervor and reactionary quelling would be interpreted via the French example, McLane 118)는 진술은 혁명 후 세대들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셀리 역시 혁명 후 세대의 지식인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좌절이 남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그가 시인을 입법자이며 예언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대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셀리는 시인을 현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일 뿐 아니라,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2) 시인이 예언자인 동시에 입법자라를 말할 통해 셀리는 프랑스 혁명이 주창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한 새로운 미래”라는 수사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가 현재에 질서를 세우는 이라면, 예언자는 미래를 읽는 이이다. 입법자와 예언자가 시인이라는 한 인물 안에 동시에 구현된다는 주장을 통해서 셀리는 현재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현재로부터 발을 떼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시인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통합적인 것에 관여한다”(A Poet participates in the eternal, the infinite, the one; 112)는 말 역시 이런 맥락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인이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고 했을 때에, 복잡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초월적인 것에서 영원을 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셀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동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 않는 포괄적인 상상력에 시인이 기반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본다.

*Defence*의 마지막 단락에서 셀리가 천명하는 시인상은 이런 점을 더 명확히 하고 있다.

They measure the circumference and sound the depths of human nature with comprehensive and all-penetrating spirit, and they are themselves perhaps the most sincerely and astonished at its manifestations, for it is

4) 셀리가 그의 저작 도처에서 프랑스 혁명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맥레인은 셀리의 혁명기에 대한 생각이 현재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60년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고 논평한다. 곧 그 때가 가장 정치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대라는 것이다. (McLane 251) 그러나 셀리가 혁명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직시하고 있었음은 분명히 해두어야 할 사실이다.

less their spirit than the spirit of the age. Poets are the hierophants of an unapprehended inspiration, the mirrors of the gigantic shadows which futurity casts upon the present, the words which express what they understand not; the trumpets which sing to battle, and feel not what they inspire: the influence which is moved not, but moves. Poets are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s of the world. (140)

시인은 인간 본성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보는 이이고 포괄적인 정신의 소유자라고 셸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종 부분적인 진실밖에 보지 못한 채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는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은 앞서 인용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상상력을 갖추어야 한다”(A man, to be greatly good, must imagine intensely and comprehensively, 118)와 같은 대목을 통해 셸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셸리가 수사적으로 한편으로는 시인을 칭송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능력을 깎아 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이라는 예의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셸리는 시인을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영감의 대변자로, 미래가 현재에 던지는 그림자의 거울로, 또 자기도 모르는 새 전투를 알리는 나팔에 차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시인의 수동성이나 도구성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을 “시대의 정신”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실패 이후 변혁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화되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맑스(Karl Marx)가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1852)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를 보면 더 잘 드러난다.

Men make their own history, but they do not make it just as they please; they do not make it under circumstances chosen by themselves, but under circumstances directly encountered, given and transmitted from the past. The tradition of all the dead generations weighs like a nightmare on the brain of the living. (Marx 15)

인간이 역사를 만들긴 하나, 자기가 선택한 조건 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주어진 조건 하에서 만들 수밖에 없으며, 죽은 세대들의 무게가 악몽처럼 살아 있는 이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맑스의 표현은 변혁의 주체로서의 인간 동

인(human agency)에 대한 믿음이 재고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이 셸리로 하여금 인간 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낙관 대신 시인의 수동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수동성으로부터 현실적인 가능성들이 새로이 배태될 수 있다는 점이다. "Ode to the West Wind"는 셸리의 시들 중에서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풍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의 화자는 4연에 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If I were a dead leaf thou mightest bear;
If I were a swift cloud to fly with thee;
A wave to pant beneath thy power, and share

The impulse of thy strength, only less free
Than thou, O Uncontrollable! ... (43-47)

서풍의 힘을 찬양하던 화자는 이 대목에서 자신이 서풍의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존재였으면 하는 가정을 하고 있다. 강한 바람에 날리는 죽은 잎사귀나 바람의 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이 대목에서 화자가 상정하는 자아상은 매우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죽은 잎사귀에서 구름으로 또 물결로 이미지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종의 발전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죽은 잎사귀보다는 구름에서 좀 더 활력이 느껴지고 숨가쁘게 마구 물결치는 마지막 이미지에서는 화자가 서풍에게서 동경했던 힘이 그에게 전이되어 그의 내면의 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화자는 서풍의 에너지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염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약하고 수동적인 자아가 이 수동성을 가능성의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인식과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은 셸리의 작품들에서 종종 발견된다.

"Mont Blanc"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Mont Blanc"의 첫 대목은 인간 정신과 그 외부 세계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브 강의 모습을 바라보던 화자는 자연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넨다.

Thou art pervaded with that ceaseless motion,
Thou art the path of that unresting sound
Dizzy Ravine! and when I gaze on thee
I seem as in a trance sublime and strange
To muse on my own separate phantasy,

My own, my human mind, which passively
 Now renders and receives fast influencings,
 Hoding an unremitting interchange
 With the clear universe of things around; (32-40)

이 시의 34행에 와서야 처음으로 "I"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화자의 자의식이 처음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화자가 이 대목에 와서 자연과의 분리를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는 어느 정도 자연과의 분리를 전제하게 되는 숭고함(sublime)의 감정을 느낀다 하고, "자신만의" 분리된 상상과 정신 속에서 아브강의 모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화자가 잠깐 느낀 분리의 순간은 다시 자신이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변의 물질 세계와의 끊임없는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곧 사라지게 된다. 자연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순간 화자는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자연과의 교감을 재확인하게 되는 순간 이 수동성은 화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의 수동성은 그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감지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 창조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Prometheus Unbound 서문에서 셸리는 "시인이 시대의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Poets ... are in one sense the creators and in another the creations of their age, 135)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셸리는 개인의 수동성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이 개인의 의도로만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임을 지적하고, 나아가 도달할 목표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목표에도 도달했을 때에 그것이 또 하나의 기성 권력으로 고정될 위험까지 환기하고 있다. 그가 *Defence*에서 시인을 "승인 받지 못한 입법자"라고 명명한 것도 승인되는 순간에 그에게 내재해 있는 창조성이 사라지고 현상 유지적인 질서에 안주하게 되는 것을 저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셸리는 시와 시적 상상력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전제들, 예컨대 의미나 관습, 제도 등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변혁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시는 그것을 가두어 두려는 칼집을 태워 버리는 번개의 칼"(Poetry is a sword of lightning, ever unsheathed, which consumes the scabbard that would contain it. 122)이라는 셸리의 주장은, 기존의 의미 체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여는 시적 상상력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가 언어를 통해 구성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지고, 그 언어의 성격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Defence*에서 셸리가 자신의 언어관을 피력하는 대목이 몇 군데 되는데, 글의 첫 부분에서 그가 밝히고 있

는 언어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Their [Poets'] language is vitally metaphorical; that is, it marks the before unapprehended relations of things, and perpetuates their apprehension, until the words which represent them, become through time signs for portions or classes of thoughts instead of pictures of integral thoughts; ... [T]o be a poet is to apprehend the true and the beautiful, in a word the good which exists in the relation, subsisting, first between existence and perception, and secondly between perception and expression. (111-12)

“시인의 언어는 진정 은유적인 것”이라는 셸리의 명제에 대하여 캐슬린 휠러(Kathleen M. Wheeler)는 셸리에게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는 시인과 시이며, 이는 상상력의 종합적인 힘을 통해서 가능하고, 은유는 바로 그 진실로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고 설명한다. (Wheeler 4) 은유가 진실을 드러내는 언어라 함은, 이성이 종종 부분적인 진실밖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듯이 보이는 진술적인 언어가 실은 상상력에 기반한 은유적인 언어만큼 포괄적인 진실을 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언어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물간의 관계를 새로이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셸리의 진술을 시적 언어가 기존의 의미, 사고 체계에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항상 새로운 진실을 향한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셸리가 “언어는 상상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생산된다” ([L]anguage is arbitrarily produced by the Imagination, 113)고 하면서 언어의 자의성을 주장하는 대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셸리가 언어의 자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습적인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보수적인 함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의 체계모니가 종종 그 권력 집단의 언술에 의해 구성되고 그 지배 담론의 힘은 언어 안에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의미 체계에서 비롯되며 관습의 고정은 곧 부패를 낳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셸리는 언어의 자의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고정된 의미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티모시 클락(Timothy Clark)은 셸리가 택한 방법론이 “외부”와 “내부”, 사고와 사고의 대상, 정신과 물질 세계 같은 기존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Clark 28) 실제로 셸리는 “On Life”에서 자아가 주변 세계와 하나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 있다. “Those who are subject to the state called reverie feel as if their nature were dissolved into the surrounding

universe, or as if the surrounding universe were absorbed into their being.” (477) 비록 그것이 “몽상”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아와 주변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셸리는 보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시 “Mont Blanc”의 첫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The everlasting universe of things
 Flows through the mind, and rolls its rapid waves,
 Now dark — now glittering — now reflecting gloom
 Now lending splendour, where from secret springs
 The source of human thought is tribute brings
 Of waters, — with a sound but half its own.
 Such as a feeble brook will oft assume
 In the wild woods, among the mountain lone,
 Where waterfalls around it leap forever,
 Where woods and winds contend, and a vast river
 Over its rocks ceaselessly bursts and raves. (1-11)

셸리는 첫 행에서 물질 세계의 영원한 실재를 상정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 물질적인 세계가 정신을 통과해서 흐르고 그 과정에서 인간 정신의 지류가 생겨나는 과정이 그려지면서 인간 정신과 그 외부 세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구절에서 셸리의 경험주의적인 태도를 강조해서 본다면 물질 세계가 정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 그의 이상주의적인 면을 강조해서 본다면 물질 세계도 결국 정신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텐데, 이 대목은 셸리를 경험주의자나 이상주의자 그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프랜시스 퍼거슨(Francis Ferguson)은 이 시가 “인간의 정신과 세계가 서로 얼마나 절묘하게 들어맞는지”(how exquisitely the human mind and the world are fitted to one another, Ferguson 204)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 이처럼 셸리는 인간 정신과 물질 세계를 배타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가 “How the Analysis Should be Carried On”이라는 짧은 글에서 외부와 내부라는 개념의 구분도 단순히 언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65)

셸리의 이러한 인식론적 방법론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사회적 현실로부터 멀어져 사적이고 상상적인 영역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추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허약해지게 된다. 셸리가 자신의 장인이자 지적 스승이기도 했던 고드윈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Political Justice*에서 고드윈은 진실함(sincerity)이 갖는 해방적 힘에 주목한 바 있다. 사람들은 종종 세속적인 걱정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 의견을 표명하곤 하는데,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전부 말하게 되면 부정한 권력을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고드윈의 무정부주의적인 성향에 근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셸리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Clark 24) 무정부주의는 개인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따라서 개별적인 주체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단위가 된다. 그러기에 주체의 자기 분석은 곧 정치적 실천이며 정치적 무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개별적인 주체로서 작용한다 할 때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셸리의 사상이 무정부주의로 전부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가 파악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Prometheus Unbound*의 서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개인이 시대의 산물인 동시에 시대의 창조자일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셸리에게 자기 분석은 곧 세계에 대한 분석이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위협하는 행동이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만 두고 보더라도 셸리에게 현실을 외면하고 내면 세계로 침잠했다는 비판을 가하기는 어려워진다. 적어도 셸리에게 내면과 외면을 경계 짓고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5] 워즈워스는 *Lyrical Ballads* 서문에서 자극적인 것만을 좇는 당대의 문화적 경향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보편적인 감정은 시인이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셸리 역시 시인을 나이팅게일에 비유하면서 시인과 독자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Defence*와 "On Love" 등에서 상상력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역설한다. 상상력을 통해 복원되는 이 관계는 비단 시인과 독자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사회 전체, 정신과 물질 세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현실이 인간의 의도대로 변화될 수 있다는 설부른 낙관론 또한 경계함으로써 불과 수십 년 전 프랑스 혁명이 드러냈던 모순을 그대로 반복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 셸리의 *Defence*는 워즈워스의 *Lyrical Ballads* 서문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시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워즈워스의 글에서만큼 당대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드러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를 읽어내고 이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물으면서 시인의 자리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낭만기의 시인들이 당대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던지고 있는 발언에 귀 기울일 때에 낭만주의에 대한 비평도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Works Cited

I. Primary Sources

Shelley, Percy Bysshe. "A Defence of Poetry."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Eds. Roger Ingpen and Walter E. Peck. Vol 7. New York: Gordian Press, 1965. 109-140.

_____. "How the Analysis Should Be Carried On."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Eds. Roger Ingpen and Walter E. Peck. Vol 7. New York: Gordian Press, 1965. 65.

_____. "On Life." *Shelley's Poetry and Prose: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Eds. D. H. Reiman and Sharon B. Powers. New York: Norton, 1977. 474-78.

_____. "On Love." *Shelley's Poetry and Prose: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Eds. D. H. Reiman and Sharon B. Powers. New York: Norton, 1977. 473-74.

_____.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Eds. Roger Ingpen and Walter E. Peck. Vol 7. New York: Gordian Press, 1965. 3-55.

_____. "Preface to Prometheus Unbound." *Shelley's Poetry and Prose: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Eds. D. H. Reiman and Sharon B. Powers. New York: Norton, 1977. 132-36.

II. Secondary Sources

Abrams, M. H.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P, 1979.

Butler, Marilyn. *Romantics, Rebels, & Reactionaries: English Literature and its Background 1760-1830*. Oxford: Oxford UP, 1981.

- Clark, Timothy. *Embodying Revolution: The Figure of the Poet in Shelle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 Ferguson, Frances. "Shelley's *Mont Blanc*: What the Mountain Said." *Romanticism & Language*. Ed. Arden Reed. London: Cornell UP, 1984.
- Kaufman, Robert. "Legislators of the Post-Everything World: Shelley's Defence of Adorno." *ELH* 63 (1996): 707-33.
- Marx, Karl.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3.
- McG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McLane, Maureen N. *Romanticism and the Human Sciences: Poetry, Population, and the Discourse of the Speci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Owen, W. J. B., Ed.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 D. D. Raphael and Macfie. The Glasgow Edition.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4.
- Wheeler, Kathleen M. *Romanticism, Pragmatism and Reconstruction*. Oxford: Blackwell, 1993.